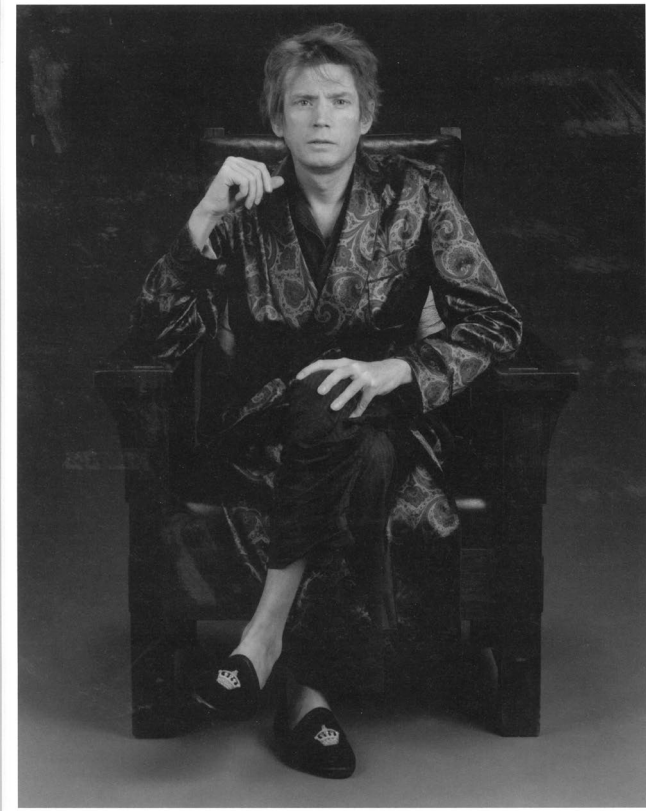


로버트 메이플소프의 아름다운 도발

March 2021 | 김수진 기자

Page 1 of 2

GALLERY



Self Portrait, Silver gelatin, 60.9x50.8cm, 1988 © The Robert Mapplethorpe Foundation. Used by permission

로버트 메이플소프의 아름다운 도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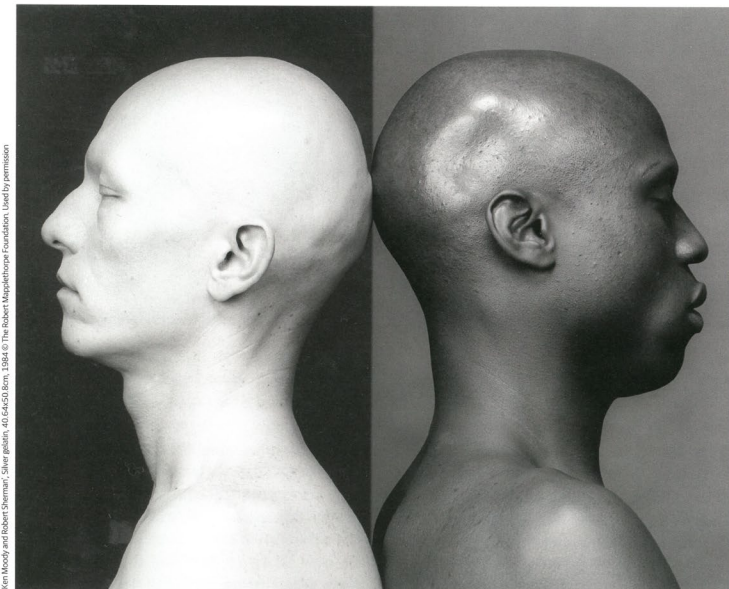
파격적인 초상과 누드, 탐미적인 정물 사진으로 현대사진의 새로운 지평을 연 로버트 메이플소프 Robert Mapplethorpe.

그의 국내 첫 회고전이 2월 18일부터 3월 28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이용우 교수와의 Q&A를 통해 터부시되던 사회적 규범에 도전해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문제적 작가의 매력을 살펴본다.

로버트 메이플소프의 국내 첫 회고전 <Robert Mapplethorpe: More Life>의 기회를 받았다. 아티스트의 어떤 면에 중점을 두고 전시를 준비했는지 궁금하다. 로버트 메이플소프는 1970-1980년대 미국 뉴욕에서 포르노그래피적 상상력이 담긴 남성 누드 연작을 발표하며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문제적 작가다. 사진작가이자 예술가, 동성애자로 논란의 정점에 올랐을 때 그의 작품은 '예술'도 '도착적 취향의 발현'도 아닌 어떤 애매한 지점에 놓여 있었지만, 1989년 3월 42세의 젊은 나이에 에이즈로 사망한 뒤에는 '컬트 히어로cult hero'로 추앙받으며 뜨겁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에이즈, 동성애자라는 작가를 향한 익숙한 프레임뿐만 아니라 그의 작업에 담긴 미술적 환상성과 영화적 서사, 이를 구현해내는 사진 자체의 완벽하고 정교한 질서에 주목하고자 했다.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까지 핫셀블라드 카메라로 구현한 시그니처 흑백사진을 중심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메이플소프의 사진이 남긴 미학적 유산의 현대적 가치들, SNS 등을 통한 이미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현재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의 사진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에 중점을 두고 전시를 준비했다.

메이플소프는 외설과 예술 사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일으키며 독자적 입지를 확보한 작가로 유명하다. 역사상 논란과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가와 작품은 상당히 많았는데, 아트 신이 그의 작업에 특히 주목한 이유는 무엇인가? 메이플소프는 "나는 포르노그래피를 예술의 경지로 올려놓았다"는 말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처럼 들리지만 당대에는 아무도 포르노그래피라는 시각적 구현물을 예술적 지점과 연결해서 보려 하지 않았다. 남성 누드를 예술의 경계에 놓고 구현한 사진작가가 별로 없었다는 점도 그를 특별하게 하는 요소다. 물론 메이플소프 이전에도 조지 플랫 라인즈 George Platt Lynes 같은 사진작가가 남성 누드와 동성애를 연상시키는 사진 연작을 선보인 바 있고, 마돈나의 <트루 블루 True Blue>와 <저스티파이 마이 러브 Justify My Love> 등 앨범 제킷 사진으로 유명한 허브 리츠 Herb Ritts나 캄빈클라인 속옷 광고로 명성을 얻은 브루스 웨버 Bruce Weber 같은 상업사진가들이 당대 대중문화 안에서 남성 누드와 퀴어 미학을 구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메이플소프처럼 다양한 피사체와 하위문화, 예술, 패션, 담론을 아우르며 아트 신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명백히 시대적 도상圖像을 구현한 작가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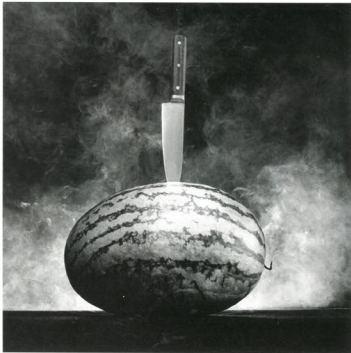


Tom Moody and Robert Dierker, Silver gelatin, 40.64x50.8cm, 1984 © The Robert Mapplethorpe Foundation. Used by permission

Image #5: Silver gelatin, 50.8x40.64cm, 1984 © The Robert Mapplethorpe Foundation. Used by permission



Image #6: Silver gelatin, 50.8x40.64cm, 1985 © The Robert Mapplethorpe Foundation. Used by permission



작가는 당대 대중문화와 아트 신의 셀러브리티, 인플루언서들과 활발히 교류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패티 스미스와 연인이었고 앤디 워홀, 데비 해리 등 많은 유명인을 모델로 사진 작업을 했다. 당시 메이플소프를 둘러싼 아트 신은 어떤 분위기였으며 피사체가 된 유명인들과의 인연은 어떻게 맺어졌는지, 그들로부터 어떠한 예술적 영감과 영향을 받았는지 알고 싶다. 메이플소프는 대중문화와 예술계, 패션계를 비롯해서 집지, 신문 등 미디어 언론사를 아우르며 여느와 다른 직설적인 인터뷰, 시대가 원하는 정확한 언어 구사 능력, 믿을 수 없는 솔직함, 선과 악, 섹스와 죽음 같은 극단적인 요소에 대한 철학으로 사랑받았다. 그는 끊임없이 명성을 갈망하며 당대 아트 신과 미디어를 조율하고 관심의 중심에 서는 것을 좋아했다. 1970-1980년대 뉴욕 미술계는 건례



Image #7: Silver gelatin, 50.8x40.64cm, 1984 © The Robert Mapplethorpe Foundation. Used by permission



Image #8: Silver gelatin, 50.8x40.64cm, 1982 © The Robert Mapplethorpe Foundation. Used by permission

없는 활기로 가득했고, 다양한 실험과 불협화음, 소비 지상주의, 미디어 문화에 대한 성찰, 대중문화와 예술의 결합, 인종과 젠더의 경계를 넘나드는 하위문화와 스트리트 아트가 무르익었다. 메이플소프는 프랫 인스티튜트 재학 시절 만나 당시 첼시 호텔에서 동거 중이던 상이송 라이더 패티 스미스Patti Smith를 알게된 예술가, 음악가, 사교계 인사, 영화배우 등 그가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서클의 영역을 넓혀갔다. 이후에도 카메라라는 시각 구현물의 예술적 가능성을 제시한 사진작가 샌디 데일리Sandy Daley, 게이 서브컬처에 관심을 둔 이후 연인이 된 큐레이터이자 미술수집가 샘 와그스타프Sam Wagstaff 등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몰려들었다. 정신적 영감을 불어넣었다. 특히 워홀Andy Warhol은 메이플소프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티스트

Image #9: Silver gelatin, 50.8x40.64cm, 1981 © The Robert Mapplethorpe Foundation. Used by permission



다. 막 사진을 예술적 도구로 삼기 시작한 무렵 그는 앤디 워홀의 잠지 촬영 초상화 작가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당시 워홀의 스튜디오 겸 클럽 하우스였던 '워홀 팩토리'는 다양한 펑크 뮤지션을 비롯해 키스 해링, 장 미셸 바스키아 등 여러 예술가들이 교류하는 장이었다. 찢어진 옷, 가죽 재킷, 빼죽한 헤어스타일 등 독특한 스타일과 빠른 비트, 공격적 태도로 대변되는 펑크 미학, 1980년대 '신스팝'으로 대변되는 뉴 웨이브 신은 당대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불어넣었고 이는 비주얼 아트와 하위 대중문화 간의 상호작용을 촉발시켰다. 이를 응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들이 메이플소프의 다양한 초상 연작에 잘 구현돼 있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할 작품 중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긴 작업이 있다면 둘러달라. '켄 무디와 로버트 셔먼Ken Moody and Robert Sherman'은 3가지 버전으로 잘 알려진 메이플소프의 대표작 중 하나다. 특히 흑인 피사체인 캔 무디의 경우 마치 피카소의 마리 테레즈 발티Marie-Thérèse Walter나 앤디 워홀의 에디 세드워드Eddie Sedgwick처럼 1980년대 초·중반까지 메이플소프의 뮤즈로 활약한 모델이다. 다른 흑인 모델과 달리 캔 무디의 경우 전신 누드 촬영을 거부했는데, 잠시 <어나더 맨Another Man>과의 인터뷰에서 무디는 그 이유에 대해 "어머니가 만일 사진을 본다면 썩은 두들겨 뺄 것이고, 미술관에서 나의 페니스를 본다는 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극한의 균형이 절묘하게 배합된 흑백사진에서 메이플소프는 흑인과 백인이라는 피사체의 성격이나 내면을 전혀 간파할 수 없도록 마치 정

물 사진을 촬영하듯 인물을 포착했다. 같은 방향을 동시에 응시하거나 서로 대척시켜 눈을 감도록 해, 어두운 배경 위에서 피사체의 질감, 피부의 부드러움, 긴장과 조화, 정물화적 렌더링을 통한 대조를 부각했다. 조명과 필름 종이부터 모델의 미묘한 포즈 하나까지 작가의 긴밀하고 밀접한 관여와 중계를 통해 탄생한 시리즈다.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작품은 '리사 라이언Lisa Lyon' 연작이다. 메이플소프에게 칼트 사진작가로서의 명성을 가져다준 시리즈로 여성 보디빌더 리사 라이언의 모습을 담았다. 그녀를 촬영한 이유에 대해 작가는 "양성적 매력에 이끌려 모델이 되어주길 요청했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것은 리사의 철저히 단련된 근육을 포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당대에 요구되던 풍만하고 부드러운 몸 우아하고 경숙한 '여성스러움'을 파괴한 지점이다. 미켈란젤로가 남성의 근육을 조각으로 재현한 것처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일방적인 편견을 배제하고 마치 페니스를 담고 있을 것 같은 여성성을 구현했다. 이 시리즈는 예술의 영역을 넘어 뉴욕 페미니즘 운동 등 당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작업으로 사랑받았다.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무엇을 보고, 느꼈으면 하나? 프랑수아 철학자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메이플소프의 1975년 작품 '자화상'을 빌려 '퐁크퐁Punctum'이라는 개념을 설명했다. 퐁크퐁이란 사진을 뛰어넘는 완벽한 이미지의 순간을 뜻하는 말로, 시각적으로 구현된 것 이상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적인 순간을 말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소개하는 메이플소프의 대표작들을 통해 관람객들이 이런 퐁크퐁의 순간을 느끼길 바란다. 멈춰 있는 한 장의 이미지가 감각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존재, 신체, 영혼의 절대적인 완벽함을 향한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으면 한다. 마치 팔을 꼭 뻗으며 해사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젊은 메이플소프를 바라보면 롤랑 바르트가 느낀 어떤 감동의 순간처럼. ● 글 김수진 기자

이윤우 미디어 역사 문화 연구자이자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뉴욕 대학교와 포돌 대학교에서 '한국 근현대 비판적 미디어 문화 연구', '시각 연구', '영화 이론과 동아시아 대중문화' 등을 연구하고 가르쳤다. 서울시립미술관 부시미술관 전시 <아시아 디아: 전상을 그대에게(2017), '제1회 안면 비엔날레'(2017), 홍콩 파라사이트의 <홍과 들, 영혼과 노래>(2016-2017) 등에 큐레이터로 참여했다. <슈퍼 휴머니티>, <제9회 부산 비엔날레: 비록 떨어지 있어도>, <세인트 카이: 이별의 공동체>, <MMA 현대사 시리즈 2020 양과: O2 & H2O> 등 다수의 서적, 저널, 카탈로그에 글을 게재했다.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국내 첫 로버트 메이플소프 회고전의 큐레이팅을 맡았다.

